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추석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다 같이

1.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2. 도우시는 하나님이 네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 하시리
아 멘.

기 도 말 은 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서로 더욱 사랑하며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가정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행동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가족들의 삶과 학업, 그리고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신앙의 명문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107:4-9 다 같이

4.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6.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8.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9.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말 씀 우리가 거주해야 할 곳 인도자

찬 송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집 다 같이

1.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2.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3.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4.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주해야 할 곳 시편 107:4-9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명절은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이때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서로를 찾으며 모이는 때입니다. 함께 모인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생활했던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사막길에 들어섰습니다. 인도자 모세가 있었지만, 그들은 목이 마르고 피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때로는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일주일에서 11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길을 40년이나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한탄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심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성장하고 훈련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다(4절). 주리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하여졌습니다(5절). 그러나 이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이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6절). 또한 바른길로 인도하사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7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힘들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저마다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그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신 중이라면, 눈을 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월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살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살전 5:13

받고 누리며 나누는
한우리교회